

역대급 불수능에도 결과로 증명해낸
2019 반수반 재원생 후기

경북대학교 의예과 | 900 학생(전적 대학: 서강대 화학생명공학과)

1. 러셀을 알게 된 계기와 선택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주변의 재수를 하는 최상위권 친구들이 러셀 평촌학원에서 이미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과 같이 선의의 경쟁을 하며 성적을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러셀 평촌학원은 필요한 수업을 골라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 혼자만의 공부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러셀 평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2. 슬럼프가 왔던 경험이 있나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저는 슬럼프가 오는 이유는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쳇바퀴 굴리듯이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다 보면 생활에 대해 무기력함을 느끼고, 이 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와 같은 회의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슬럼프를 느낄 때마다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하며 공부할 때 힘든 점이나 학습방향에 대해 이야기 하며 답답함을 풀었습니다.

3. 과목별 학습 노하우가 궁금해요!

일단 국어과목의 경우에는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이 1순위이긴 하지만 다른 사설 모의고사나 리트지문과 같은 고난도 지문으로 연습하는 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침마다 평가원 비문학 문학 지문은 1시간 30분정도 시간제한 없이 공부한 후 인강을 통해서 모르는 부분을 보충하는 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기출분석을 할 때 학생들이 가장 실수하는 점 중 하나가 시간을 재고 푼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게 되면 압박감 때문에 공부한다는 느낌을 주긴 하지만 정작 고민하고 사고하는 시간은 부족하게 되어 정작 국어실력은 많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시간 제한 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며 공부하는 것, 호기심을 가지고 이 문장이 왜 쓰였는지 고민하며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학 과목의 경우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1순위 이며 그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교과서를 생각하며 읽는 것입니다. 수학 개념서를 읽을 때는 이 공식이 왜 도출되었는가?

이것을 왜 배우는 가? 라는 것을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좌표를 왜 배우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점,선,면,구의 위치관계 파악을 쉽고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 만든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 과정이 기출문제를 풀 때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출문제를 분석할 때에는 평가원의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조건이 왜 주어졌지? 굳이 이러한 발문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 등을 생각하며 기출문제를 분석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이러한 과정이 혼자 하기에는 버겁다고 생각하여 인강과 현장강의 수업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파이널 기간 때에는 기출문제 풀이를 지속적으로 해주어야 하며 평기원 스타일대로 출제된 양질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해주세요.

수험생활이 힘든 것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마음이 힘든 것이 없어지지 않죠. 수능은 내신 시험과 달리 암기 시험도 아니고 컨디션과 운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험이니 불안함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이해 못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위의 최상위권 또는 극상위권 학생들을 보면 항상 잘 보입니다. 어느 정도 이상의 실력이 있다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요. 자만은 금물입니다. 자신에게 쉽다면 모두에게 쉽습니다. 자신에게 어려운 것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것을 노력으로 극복하는 사람이 좋은 성과를 얻는 것입니다. 불안해 하기 보다는 지금 눈 앞에 놓여진 기출문제 한번 더 분석하고 혹시라도 빠진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며 매꾸는 것이 수험생활에 더 도움될 것입니다. 수험 생활때 멘탈이 좋아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멘탈이 양 좋은 학생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멘탈이 양 좋지만 그 불안한 생각을 잊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멘탈이 양 좋다는 핑계로 자신이 공부하지 않는 것을 포장하지 마세요. 순전히 여러분들의 탓입니다. 원하는 대학을 가지 않는다고 해서 현실적인 문제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노력하지 않고 대학을 못 가게 된다면 대학의 콤플렉스가 영원히 여러분의 어깨위에 있을 것입니다. 걱정보단 긍정을 불안보단 노력을 우선시하는 학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